

동네의 장례식장

김강석/SBS보도국 사회1부 차장

“동네 진입로에 장례식장 왜 말이나.” “시장은 사과하라.” 몇해 전 경기도 일산 신도시 곳곳에 내 걸린 현수막이다. 당시 고양시측이 일산 신도시 진입로변 공터에 장례식장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결사항전을 외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필자 역시 깨름직했다. 우선 아침 저녁 출퇴근 때마다 진입로변에 있는 장례식장을 봐야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많은 병원 영안실의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관리상태를 생각한다면 동네에 짓는 장례식장은 어떤 수준인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도시 외곽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지으면 될 것을 구태어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이를 허용한 것은 모종의 흑막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갖게 했다.

따라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돼 장례식장의 신설이 백지화되길 내심 바랐고 그럴 것도 없이 곧 철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님비를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반대를 견뎌낸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나 다를까 장례식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별칭고 퍼런 글씨의 현수막은 자취를 감췄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님비를 비판해 온 기자면서도 우리 동네의 장례식장은 말이 안돼 라는 내 마음의 님비가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그런데 해외연수로 한동안 국외로 나가 있다가 돌아와 보니 일산 진입로 한켠에 장례식장이 버젓이 들어서 있는게 아닌가. 물론 장례식장 전

면은 커다란 담장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었다. 얼핏 옆에서 바라본 장례식장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았고 장례식장이라는 검고 커다란 글씨도 무거워보였다.

우여곡절이 있었겠지 하는 생각으로 애써 이를 외면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1년여가 지난 지

금 나의 생각은 희안하게 바뀌었다. 대답은

간단하다. 아침 저녁 바라보는 장례식장은 내게 많은 것은 던져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순간 저곳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다. 얼마나 간단하고 허망한 것인가 살아 있다는

것이 온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물욕과 죽음 이외엔 대책이 없는 갖가지 욕망에 사

로잡혀 번민하고 고통을 겪는 것

이 얼마나 부질 없는가를 하루에 두번씩

장례식장이 일깨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남은 삶은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살아있을 동안은 좀더 뜻있고 보람된 일을 해야지 하며 나를 채찍질하기까지 하는 것이 또다른 욕망이될 정도다.

결론은 잘 들어섰다이다. 차제에 죽음이 항상 우리 곁에 있듯이 돌아가는 이를 보내는 장례식장도 가까이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장례문화도 서구처럼 삶의 일부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좀더 바랄 게 있다면 식장을 좀더 아름답고 깔끔하게 짓고 위생관리 등도 철저히 해서 기존 병원 영안실의 이미지를 벗었으며 하는 것이고 이름도 이별의 집이라든가 좀더 친근한 것으로 지어서 모두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하루속히 바꿨으면 하는 것이다. PPFK

